

## 6·13지방선거 정당간 후보 '부익부 빈익빈'

6·13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들이 넘쳐 나고 야당은 선뜻 나서려는 후보가 없어 인물난을 겪으면서 정당간 후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4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여당인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당의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후보군도 넘쳐 나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광주시장 후보군은 물론 구청장 후보들도 출판기념회와 출마선언을 앞다퉈 하며 당심과 표심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전이 뜨겁다. 현재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군은 모두 7명이다. 현직인 윤창현 광주시장

### 민주 출마자 풍년 속 민평·미래당은 '인물난' 한국당·정의당·민중당 "선택과 집중 승부수"

과 강기정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장, 민형배 광산구청장, 양향자 당 최고위원, 이병훈 광주동남부 지역위원장, 이용섭 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최영호 남구청장 등이다.  
이들 후보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출마선언에 이어 출판기념회와 북 콘서트 등을 통해 민심잡기에 올인하고 있다. 하지만 연초부터 터진 당원명부 유출과 이용섭 전 부위원장에 대한 대

통령 격려발언 등으로 후보들간 집안싸움이 시끄럽다.  
당원명부 유출과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과 대통령 발인 논란에 시선이 집중된 상황에서 향후 당내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5개 구청장 후보간 경쟁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높은 지지율을 누리고 있고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이 '당선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출마예정자들이 붓물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장 출마로 일찌감치 격전지로 떠오른 광산구와 남구는 후보군만 10여명에 달한다.  
현재까지는 민주당 후보들이 다른 당 후보들을 밀쳐잡고 앞서고 있어 당내 경선이 본선이나 마찬가지로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 견제세력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일어나 바람을 타면 민주당으로서는 쉽지 않은 선거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달리 한국당·민평당·바른미래당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역량 극대화를 꾀한다는 전략이지만 낮은 지지율과 돌아선 민심으로 인물난에

허덕이고 있다.  
민평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에게 뒷발을 송두리째 내줄 순 없다며 인재 영입을 통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각오지만 정작 링에 오를 선수 찾기에 비상이 걸렸다.  
민평당에서는 6선의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과 초선으로 전국적인 지도를 지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 등만 가능성이 한때 점쳐졌지만, 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비상이 걸린 만큼 현역차출이나 자발적 출전에 부정적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최경환 민평당 광주시장 위원장은 "민주당과의 1대1 구도 속에 5개 지지 구청장과 광역·기초의원 중 50% 당

선을 목표로 조직정비와 지지세 확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 분당 후 반안정서가 커진 가운데 4선의 박주선 의원(동남)과 김동철 의원(광산갑)이 거론되고 있으나 상황이 녹록치 않다. 현역차출에 대한 부담과 분당에 따른 지역여론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촛불정국과 바른미래당 등장으로 한국당은 형편이 더욱 나빠진 형국이다.  
그 동안 10% 안팎으로 유지됐던 지역의 보수표까지 무너지고 갈라져 후보찾기조차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민주당 공천이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과 후보공천을 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야당 후보들의 돌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조기철 기자

## 금호타이어 결국 더블스타로?

채권단, 해외매각 방침...노조, 강력 반발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중국 더블스타로의 금호타이어 매각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관련기사 7면>  
산업은행 이대현 수석부행장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당 5,000원 총 6,463억원의 투자유치를 받고 금호타이어 지분의 45%를 넘기는 방안을 더블스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행장은 더블스타로의 매각 재추진 이유에 대해 "채권단 체제 아래 정상화 달성이 불투명하다"며 "외부자본 유치를 통한 정상화 추진이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다만, "더블스타는 노조가 반대한다면 들어오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

다"며 "'노사 동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고 강조했다.  
노조가 더블스타로의 매각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채무만기 연장을 조건으로 노사 경영 정상화 방안 합의를 요구했던 산업은행이 '더블스타매각'을 공식화하자 금호타이어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고공농성에 들어간 노조는 물론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노조는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보다 자본규모나 시장경쟁력이 훨씬 떨어지는 더블스타에 헐값으로 매각되면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며 "기술유출 및 이전, 국내 생산제품의 시장경쟁력 하락, 국내생산 축소, 재무건전성 악화, 파산·워크아웃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파업 등 강경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해 더블스타 매각에 반대했던 지역 시민사회, 정치권 등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원은 지난해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에 매각된 후 생산을 30% 감축할 때 전국적으로 생산감소 2조1,846억원, 부가가치감소 6,309억원, 고용감소 7,558명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서미애 기자



"남도로 꽃구경 오세요"

전남도는 4일까지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8 내나라여행박람회에서 국내외 지자체와 여행업계·관광객들에게 광양 매화마을·구례 산수유마을·함평 나비축제 등 남도의 봄꽃 명소를 홍보했다.

## '5·18특별법' 제정 암매장 발굴 '전환점'

국방부, '진상규명위 TF'...5월 단체, 조사위임 검토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향후 발굴조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5월 단체가 5·18 당시 행방불명자의 유력한 암매장지로 지목된 옛 광주교도소 일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 제정으로 재단이 발굴조사 주체에 대한 고민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4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재단과 5월 3단체는 5·18희생자 발굴조사 일정을 재검토한다.

발굴조사 재개의 변수로 떠오른 것은 '5·18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가 5월부터 '5·18진상규명위원회 설치준비 TF'를 운영한다고 밝히면서 재단의 발굴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진 것이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희생자를 찾겠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으며, 상황이 달라진 만큼 발굴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 5·18기념재단 신임 이사장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 선출



5·18기념재단 신임 이사장으로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71)이 선출됐다.  
김영진 신임 이사장은 5선 국회의원으로 노무현 정부의 초대 농림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1988년 광주청문회에서는 청문위원, 2011년에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세계유네스코기록유산 등재에도 큰 공헌을 한 바 있다.  
기념재단 이사회는 5·18진상규명 등에 필요한 김 신임 이사장의 활동경험을 높이 평가해 책임자로 판단했다.

## 문 대통령, 정의용 등 10명 대북특사 파견

오늘 특별기로 방북...대통령 친서 휴대

비핵화 북미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문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단이 1박2일 일정으로 5일 오후 특별기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방북한다. 특사단은 문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4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 특별사절로 하는 특별사절단을 북한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절단은 정 실장을 수석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권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

상황실장 등 5명으로 꾸려졌으며, 실무진 5명까지 포함하면 총 10명이다.  
윤 수석은 "특사단은 5일 오후 특별기편을 이용해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해 1박2일간 평양에 머무르며 북한 고위급 관계자와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 위한 대화에 나설 예정"이라며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여건조성, 남북교류 활성화 등 남북관계 개선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강병은 기자

## 광주형일자리 캠페인

# 광주형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우리시의 정책이며 시민과 함께 하는 사회적협동운동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발전,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합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협의를 통한 상생과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듭니다.

- 적정임금 (연대임금) 실현
- 적정근로시간 실현
- 노사책임경영 구현
- 원하청관계 개혁

빛그린산단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연계한 광주형 일자리 선도 모델 구축

후원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진남매일 JEONNAM DAILY NEWS